

#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현황과 시사점

이세재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세계적인 해외 투자 동향

우루과이라운드 후 국가간 무역 장벽은 많은 부분 제거되었다고 보고, 세계 경제의 통합은 이제 투자 자유화의 첨단을 달리는 다자간투자협정(MAI)을 필두로 투자 장벽의 제거를 향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물론 지역주의의 지역적 경제 통합 진행으로 지역 거점 설립 등 해외 투자의 필요성과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경제력의 성장으로 투자 여력이 해외로 진출하는 자연적인 상황뿐 아니라, 경제 통합에 의한 경쟁 격화가 해외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더 강화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해외 직접 투자는 1985년 이후 1990년까지 세계 GDP 증가율 12%를 크게 상회하는 연평균 34%의 고도 성장을 지속했는데, 이는 일본이 1989년 미국을 앞지르는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는 해외 투자 확대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일본은 동남아 지

역에 꾸준히 투자하면서 1985년 이후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북미와 유럽 등지에 투자 비중을 70% 이상으로 확대하여 1984년 100억 달러 수준의 해외 투자액이 1989년 675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일본의 해외 투자 러시는 90년대 경기 침체로 양적으로는 축소되었고, 신흥 투자 대상국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투자에 머물면서 질적으로는 해외 기업의 현지화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1992~95년 해외 투자는 155억~219억 달러 선에 머물고 있다.

한편, 1993년 미국의 해외 투자는 390억 달러에서 690억 달러로 76.9% 증가했고, 이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총 해외 직접 투자(유출)는 1993년과 1994년 전년 대비 각각 11.0%, 4.4% 증가하였다. 1995년에 총 해외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38.1% 성장하여 3,178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해외 투자의 세계적인 급증 현상은 역시 WTO체제의 출범이 국가간 시장 장벽을 허물고 해외 투자의 기대 수익을 급격하게 높인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투자도 1992~93년까지 12억~14억 달러에 머물던 것이 1994년 해외 투자의 기본적 자유화(negative list system) 이후 25억 달러로 급증하여, 해마다 34% 내외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작년 총투자액은 41.8억 달러에 이르렀고, 투자 잔액으로는 1993년 54.4억 달러에서 1996년 137.6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한국의 해외 투자는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한 규제 등의 폐지·글로벌 경쟁의 가속때문에, 국내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재촉하여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투자 현황

우리의 해외 직접 투자의 분포는 산업별로는 1996년 금액 기준 제조업(56.1%) 중심, 무역업(20.5%) 위주 투자이며, 기타 서비스 산업에 진출은 아직 미약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가운데서도 조립 금속(41.0%), 섬유 의복(12.3%), 1차 금속(Basic-Metals)(9.1%), 석유화학(8.5%) 순으로 투자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금액 기준 1996년 동남아(44.0%), 북미 지역(31.5%)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1996년 북미 지역 투자가 거의 세 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여 유럽 지역 투자를 다시 추월한 것은 NAFTA의 강화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표 1> 참조).

1996년 한 해에 동남아 지역 투자는 중국(8.12억 달러)을 필두로 인도(1.5억 달러), 인도네시아(1.48억 달러), 홍콩(1.03억 달러), 베트남(0.90억 달러), 일본(0.80억 달러)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1996년 북미 지역은 미국(15.58억 달러), 중남미에서는 페루(0.54억 달러), 브라질(0.50억 달러)이 선두에 있으며,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1995년(0.40억 달러)에 비해 감소한 0.28억 달러에 머물렀다. 또 유럽 지역에서는 작년 영국(2.18억 달러), 폴란

<표 1> 우리나라의 해외 지역별 총 해외 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동남아	중동	유럽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대양주	계
1993	4.87	0.86	1.90	3.90	0.44	0.31	0.35	12.62
1994	10.79	0.38	4.28	5.67	0.49	1.14	0.22	22.98
1995	16.46	0.31	6.14	5.46	1.54	0.41	0.35	30.66
1996	15.99	0.26	6.54	15.77	2.43	0.12	0.65	41.76

드(1.20억 달러), 독립국가연합(CIS)(1.16억 달러), 독일(0.83억 달러) 등이 주요 투자 대상국이다. 특기할 것은 미국·영국·홍콩 지역에서는 제조업보다는 무역업 진출이 앞선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5대 그룹의 해외 투자 패턴을 비교해보면, 삼성과 대우그룹에 비하여 현대그룹은 美洲 지역 편중이 심하며 선경그룹은 아시아 지역 편중이 심하다. 업종별로는 선경그룹은 광업, 대우와 현대그룹은 제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제조업과 무역업에 해외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현재 우리 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의 한계를 우선 반영한다. 즉, 세계적으로는 금융과 정보통신 사업을 위주로

해외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서 외국 기업과 경쟁력이 취약함을 반영한다고 보겠다. 또 기타 서비스업에서도 해외 진출 역량이 아직 떨어진다고 하겠다. 이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1995년 현재 54.5%가 서비스업이고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서비스업 가운데서 효율적인 투자를 지원하는 간접 부문의 동반 진출 필요성이 우선 부각되고 있다. 즉, 투자 채원의 조달·세무·법무·투자 정보 지원이나 제조업 지원 고객 서비스 등 간접 부문에서 협력 진출이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필요하다. 이는 특히 언어나 문화 장벽이 상대적으로 심한 우리 기업들로서는 현지

〈표 2〉 우리나라 5대 그룹의 해외 투자 현황 비교(1995년말 기준)

(%)

		현대	삼성	대우	LG	선경
업 종 별	광업	8	3	1	16	72
	임업	1	-	-	-	1
	제조업	55	47	62	37	18
	건설업	1	1	6	-	-
	운송·보관업	1	0	0	37	-
	무역업	22	38	20	5	7
	기타 서비스업	13	12	10	-	2
지 역 별	북미·중남미	82	29	15	52	7
	유럽	5	34	38	18	5
	아시아	11	33	34	28	82
	기타	2	4	14	3	7

자료: 한국은행(1996), 「해외 투자 현지 법인 현황」.

기업이 현지 생산 거점으로서 또 현지화 단계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기까지는 우선적·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법률·회계서비스공급체계의 선진화도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시사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대기업들이 소위 신흥 거대 시장(BEMs: Big Emerging Markets)에 급격히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기업들도 이들 지역에 대한 선점 효과를 누리고 지역적 경기·정치적 위험의 분산 차원에서 지역적 집중보다는 분산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된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적 해외 직접 투자가 종래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이익 추구에서 벗어나 현지 시장 추구 내지 글로벌 네트워크의 범위 경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지역별 편중이 심하다는 것은 해외 투자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점차로 극복되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개별적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의 우선 순위나 전략에 물론 좌우되는 것이다. 선진국 중심의 시장 선점 및 선진

국의 첨단 기술 도입을 목적으로 선진국 투자에 집중하는 전략도 그 자체로 강점을 살릴 수 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란 지역적 역내 네트워크의 효율적 구축 기반 없이 무의미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적 내실화와 선점의 이익 사이의 조화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또한 틈새 시장 내지 선점 시장으로서 개도국 투자의 중요성이 과대하게 강조되고 있는 면도 있다. 실제로 1995년 세계 총외국인 투자액(유입) 3,149억 달러 가운데서, 미국·영국·불란서 3 개국에 대한 투자액만 1,102억 달러에 달하여, 한국, 홍콩 등을 포함한 아시아·중남미·중동구의 개도국 전체에 대한 투자액 997억 달러를 능가했다. 중국에 대한 375억 달러 투자를 제외하면 신흥 거대 시장을 포함한 개도국 전체에 대한 투자는 미국 한 나라의 한 해 투자액(602억 달러)보다 과히 크지 않다.

그러므로 신흥 거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투자 강화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에 비추어 정합성의 문제로 볼 수 있고, 지역적 편중의 문제는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지역적 네트워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기적 질적 관련성의 문제부터 점검되어야 할 것이

다. 내실이 없고 단계적으로 발전을 추구하지 않는 외형 위주의 확대 내지 급조된 글로벌체제란 아웃소싱이나 타사와 전략적 제휴에 비해 더 위험한 구상임이 자명하다. 또 후진국일수록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고수익·고위험의 투자 기회에 현혹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현재 선진국에 지역적으로 집중된 투자는 최근의 지역주의 강화 경향에 대한 관세 절감 내지 극복을 우선적인 이유로 추진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NAFTA, EU 등의 지역주의는 그 지역내 부품을 부가가치 기준 일정량 이상 사용하여야(Local Contents 규정)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현지 수요가 존재하는 경우, 역내에서 생산 공급하는 것이 통상 문제를 우회하고 지역 기업화하여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 장벽의 문제나 지역적 저

비용 이익이란 그 중요성이 점차 감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선정된 지역에 투자가 집중될 때 이는 좀 더 장기적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계획되고 착수되어야 한다. 첫째, 장기적인 지역 기업화를 위해선 역내의 효율적인 생산을 지원하는 주변 연관 산업(제조업의 경우 부품 산업과 금융, 무역업 등)과 동반 진출 내지 제휴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현지 기업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증가하여 정보·서비스·연구 개발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조업에서도 현지화에 성공한 모범적 사례들을 보면, 현지 기업이 본사의 명령에 따라 저임금·저비용의 이익을 누리며 생산하는 기계적인 측면이 아니라, 스스로 정보를 생산·처리하고 문제를 예측하고,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구 개발하는 첨단적 촉각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지 기업은 무엇보다 경쟁력있는 학습체가 되어야 하는

〈표 3〉 우리나라 5대 그룹의 신흥 거대 시장 진출 현황 비교(1995년말 기준)

(단위: 백만 달러)

	현대	삼성	대우	LG	선경
중남미	0	33.6	15.5	89.1	4.2
동유럽·러시아	24.9	37.6	360.8	57.0	15.3
ASEAN	27.1	288.0	201.9	110.7	66.7
중국	70.7	143.7	207.0	73.0	350.8
합계	122.7	502.9	785.1	329.8	437.0

자료: 한국은행(1996), 「해외 투자 현지 법인 현황」.

데, 자발적으로 연구·디자인·엔지니어링·개발할 수 있는 독자성과 인력 개발 투자가 장기간 지속될 필요를 인식해야 한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우리의 해외 투자는 수출 위주의 성장을 해온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재인식되어야 하겠다. 소위 지식 기반 사회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길은 반드시 첨단 산업이 아니라도 제품의 현지화·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현지 기업은 학습의 전위 역할도 하는 것이다. 즉, 해외 부문이 국가적 지식관리체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현지 기업에 대한 지식 관리 내지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유연한 리스트럭처링 능력이 요구되는 정보시대의 해외 투자는 과거에 비해 경영진에게 또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면에서 또 다른 임무와 목표를 부여한다. 해외 투자는 국내 사업의 확대 내지 연장선뿐만 아니라 비관련 다각화를 포함한 신사업 분야에서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유연한 사업 개척의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천적으로 기획 단계부터 신규 사업에 대한 다차원적·定性的인 분석 평가 능력의 제고, 인수·합병

(M&A)이나 제휴 투자 기법의 습득, 또 현지 법인·지사·해외 공관을 통한 투자 정보와 경험의 교환이 경쟁과 협력 차원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 맺음말

모든 나라에 공통되게 시장 개방을 통한 교역 자유화, MAI 등 국제적 투자 자유화, 경쟁 격화에 의한 현지(생산) 본부화의 필요성때문에, GDP 대비 해외 투자의 증가는 불가피한 경향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의 해외 투자가 1995년 현재로서는 경상 GDP 대비 0.66%(1996년 0.86%) 정도로 우리의 경제 규모로 볼 때 1995년 미국(1.36%), 영국(3.43%), 독일(1.46%)보다 작으나, 일본의 경우(1992년 이후 GDP 대비 0.41~0.70%)와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다. 단, 이는 일본의 경기 침체 이전 수준보다 절반 이하로 해외 투자가 축소된 상태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현재 상대적으로 다소 침체된 일본형 해외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해외 투자 비율에는 많은 결정 요인이 작용하겠으나 경기 침체의 문제가 없다면, 우리의 해외 부문의존도를 고려했을 때 미국·영국·독일

이나 침체 이전의 일본과 같이 고도의 해외 투자국이 될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각 대기업들은 글로벌체제 확립을 목표로 해외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아직 본격적으로 현지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한 집중 투자를 이루지 못한 상태인데, 전술한 바와 같이 정보화시대, 글로벌시대에 해외 투자의 국가적 차원의 중요성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의 자국 유치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부진한 상황에 있어서, 산업 공동화의 우려에서는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보·기술·외교적 협조를 추진하는 동시에, 이에 따르는 산업 공동화의 부정적인 측면은 외국인 투자 유치로 극복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인을 공히 증가시키고, 국내의 각종 규제나 차별의 완화, 특히 자금 조달 여건 및 채무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sup>1)</sup> 미국의 경우 80년대 이후 10여 년 계속된 해외 투자와 산업 공동화를 거치면서 민간 기업 위주의 구조 조정 과정을 통해 정부

의 재정적 간섭을 최소화하여 현재의 저인플레이·저실업·고성장을 이룬 것을 참고할 수 있겠다. 반면, 일본은 산업 공동화 문제를 최소화하고 산업 구조 조정 정책이 가미된 해외 투자를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로 인용이 되고 있다. 경쟁력의 성장 방향은 산업에 따라 일률적인 경로로 지정할 수 없겠으나, 우리의 경우는 2년 내에 MAI협정 타결을 가정하면 이제는 선택의 여지없이 국내외로 임박한 급격한 시장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시점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김관호(1995. 12), 「일본 대미 직접 투자의 전개 및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방영민(1996), 「국제투자론」, 법문사.
- 한국은행(1977), 「해외투자통계연보」.

1) 최근 외국인 기업의 신고 절차·사후 관리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나, 금융 비용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함. 일본의 경우 이미 낮은 이자율뿐 아니라 외국인 기업의 설비 투자에 필요 자금은 기금에서 95%까지 보증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인 기업이 단기 자금이나 상업 차관 도입에서 자본금 기준 한도를 적용하고 있음.